

다케조에 미쓰히로(竹添光鴻)의 류봉록(劉逢祿) 공양학 저작에 대한 독서와 수용

첸인(錢寅)

(허베이공업대학 인문법률학원 중문과; 허베이성 언어문화혁신발전연구기지)

요약

『좌씨회전(左氏會箋)』은 일본 학자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대표 저작으로, 그 안에 중일 학자들의 『좌전』 연구 성과를 대량으로 인용했다. 고적 문헌을 살펴보면, 『청경해(淸經解)』본의 공양학 저작 일부에도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독서 흔적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류봉록의 『좌씨춘추고증(左氏春秋考證)』 『잠고황평(箴膏肓評)』 『공양하씨석례(公羊何氏釋例)』 등이 있다. 『좌씨회전』 중의 이론과 류봉록의 공양학 관점을 대략적으로 비교하면,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단지 청대 공양학 저작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용도 하고 반성도 했음을 알 수 있다. 류봉록의 공양학 성과를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릉수(凌曙) 등 학자들의 성과도 충분히 이해했다. 『좌씨회전』의 성서는 중일 양국 『좌전』 연구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더 나아가 청대 공양학 부흥의 국면 하에서 『춘추』학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좌씨회전』; 류봉록; 청대 공양학; 『좌전』; 다케조에 미쓰히로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1842-1917), 휘는 미쓰히로(光鴻), 자는 점경(漸卿), 호는 정정(井井)이라 하여 세인들이 다케조에 세이세이(竹添井井)라 부르기도 했

다. 만년에는 독포루(獨抱樓)라는 호도 사용했으며, 신이치로는 그의 통칭이다. 히고(肥後, 지금의 구마모토현) 아마쿠사 가미무라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 미쓰쓰요시(光強)는 유의(儒醫)로서 에도 후기 저명한 유학자 히로세 단소(廣瀨淡窓)를 사사했다. 신이치로는 어려서부터 총명함이 남달라 신동이라 불렸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큰 기대를 품고 엄격히 교육하며 직접 경서를 가르쳤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신이치로는 4세에 『효경』을 암송하고, 5세에 『논어』를 배우고, 7세에 『자치통감』을 읽어 향리에 재명이 높았다고 한다.

1875년경, 신이치로는 수행원으로서 주중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따라 중국에 와서 북경, 직례, 천섬, 양호, 상해, 소항 등지를 유람하고 『잔운협우일기병시초(棧雲峽雨日記並詩草)』를 저술했다. 신이치로는 학자형 외교관으로, 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동안 유월(俞樾) 등 저명한 학자들과 교유했으며, 퇴임 후에는 잠시 도쿄제국 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10여 년간 『좌씨회전』 『모시회전(毛詩會箋)』 『논어회전(論語會箋)』 세 권의 저작을 차례로 완성했다. 1917년 병사했으며 향년 76세였다.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좌씨회전』은 동아시아 『좌전학』의 집대성작이라 할 수 있으며, 중일 학술사상 좌씨 학자들의 저술을 모두 채택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했다. 현재 일본 학계와 중국 학계에서 『좌씨회전』에 관한 많은 연구가 나왔으며, 예제(禮制) 천명, 사학 사상, 의례(義例), 주석 특징 및 청대 고거학과의 관계 등 여러 방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청대 춘추학 발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공양학의 부흥인데, 그렇다면 청대 공양학이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좌전』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마땅히 학자들의 시야에 들어와야 한다. 최근 필자가 『청경해』 각본을 살펴보던 중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청대 좌씨학 저작을 광범위하게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청대 공양학의 중요한 성과도 자세히 연독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서적 독서의 형태와 『좌씨회전』 성문의 내용 전개라는 두 가지 층차의 토론을 시도하여,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좌전』 연구에서 청대 공양학 중요 성과를 변별하고 취사선택한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류봉록 공양학 관련 저작 독서

건가(乾嘉) 학술의 대표 인물이자 청대 양주학파의 지도자 완원(阮元)은 양광(兩廣) 재임 시 학해당(學海堂)을 설립하여 경세치용의 인재를 양성했다. 그러나 당시 영남 지역은 진백사(陳白沙)의 학문이 다소 영향력이 있었을 뿐 학술 국면이 상당히 쇠락했다. 학해당의 서적 문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원은 『황청경해(皇清經解)』 간행을 주관했다. 『황청경해』는 도광 5년(1825)부터 간행을 시작하여 도광 9년(1829)에 기본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청초부터 건가 시기까지의 경학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건가 학술을 전면적으로 총결한 것이다.

그 수록 기준은 고거가 정심하고 훈고가 명석한 것을 지향하여, 한학(고문경학)과 금문경학 양대 유파의 대표작을 포괄했는데, 예를 들어 대진(戴震)의 『맹자자의소증(孟子字義疏證)』, 공광삼(孔廣森)의 『춘추공양통의(春秋公羊通義)』, 류봉록의 『공양하씨석례』 등이다. 총서는 또한 일부 학자들이 간각할 여력이 없거나 간각이 널리 퍼지지 않은 저작들을 처음으로 간각했는데, 예를 들어 왕중(汪中)의 『술학(述學)』, 릉수의 『예설(禮說)』 등으로, 이러한 학술 성과가 보존되고 유전되게 했다.

유감스럽게도 청 함풍 7년(1857) 영국군이 광동을 침입하여 『황청경해』 판목이 과반 이상 훼손되었다. 이에 함풍 10년(1860) 당시 양광총독 노송광(勞崇光) 등이 기금을 내어 보간했는데, 손상된 부분을 수보했을 뿐만 아니라 풍등부(馮登府)의 7종 저작 총 8권을 증각했다. 이 판본은 그래서 "함풍경신보간본(咸豐庚申補刊本)"이라 불리며, 판심 하단에 "경신보간(庚申補刊)" 글자가 있어 독특한 판본 표식이 되었다.

현재 『황청경해』에 수록된 류봉록의 『공양하씨석례』 『잠고황평』 『좌씨춘추고증』 『곡량폐질신하(穀梁廢疾申何)』 등 저작은 모두 "경신보간"본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존하는 『공양하씨석례』 한 부와 『좌씨춘추고증』 한 부에 "다케조에 미쓰히로(竹添光鴻)" 전서 백문인과 "정정거사진장(井井居士珍藏)" 전서 음문인이 찍혀 있으며, "정정거사"는 아마도 다케조에 미쓰히로 "정정"이라는 호의 전칭인 듯하다. 이홍장(李鴻章)이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잔운협우일기』에 쓴 서문에서 "일본 정정거사 다케조에 신이치(日本井井居士竹添進一)"라 칭했고, 서문 중에서 다케조에 미쓰히로를 칭하는 곳에서도 많이 "거사"로 대칭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인장 외에도, 이 두 권의 책에는 당시 독서의 흔적이 보존되어 있다 - 간단(簡端)의 찰기와 문자 위의 권점이 그것이다. 또 『잠고황평』 한 부는 비록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두 방인이 없지만, 책에 앞의 두 부와 묵색이 같고 권점 방식이 같은 독서 흔적이 남아있어, 이 역시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읽은 책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잠고황평』의 편폭이 짧아 책이 얇아서 『좌씨춘추고증』과 합본되어 『춘추좌전고증』에만 인장이 찍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중국 대부분을 누빈 일본 외교관이 관직 생활 여가에 류봉록의 학술 성과를 수장하고 읽었음을 보여준다. 방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호리카와 히데시(堀川英嗣)가 논문에서 제공한 단서인데: 와세다대학 도서관에 다카우메테이(高梅亭) 저 『국책초(國策抄)』 『국어초(國語抄)』 『곡량전초(穀梁傳抄)』 『공양전초(公羊傳抄)』가 있으며, 그 권두에 "정정거사진장"의 주문인과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백문인이 있어, 이 책이 다케조에 미쓰히로 구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공양』 『곡량』의 관련 문헌이 줄곧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독서 시야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서 과정의 권점에 대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주필로 구름했는데, 주요 목적은 구두와 중요한 인명 지명의 표기였다. 류봉록의 가장 중요한 저작 『공양하씨석례』에 대해서는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남긴 독서 흔적이 가장 적는데, 단지 "장삼세례(張三世例)"에서 집중적으로 몇 조가 나타날 뿐이다. 그중 그는 "소견(所見)" "소문(所聞)" "소전문(所傳聞)" 등의 곳을 특별히 유의하여 표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나타난 원인은 대개 세 가지다: 첫째, "장삼세례"가 이 책의 첫 편으로, 대체로 독서는 모두 첫 편부터 시작하며 끝까지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류봉록 『공양하씨석례』 성서의 체례에 제한되어, 분류 배비 귀납의 형식으로 나타나 완전한 논설이 드물어 독서에 "친화적"이지 않다. 셋째,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류봉록이 공양학으로 구축한 역사 이론에 관심이 있어, "소견" "소문" "소전문"의 각도가 더욱 역사 변천 발전의 상태를 체현할 수 있으며,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좌전』을 주해할 때 역사 변천의 시각을 중시했다. 그가 예제, 정제의 인혁을 고찰한 것은 공양학 역사 철학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역사가 정태적이지 않고 발전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다.

『공양하씨석례』에 비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좌씨춘추고증』과 『잠고황평』의 독서

량이 명백히 많다. 청경해본 『좌씨춘추고증』은 두 권으로 나뉘어 『황청경해』 제1294권과 제1295권을 차지한다. 상권은 『좌전』 중의 내용을 집중 고증하여 공양학의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하여 그것이 "동진위작"임을 논증했고, 하권은 『사기』와 양『한서』 등 문헌자료에 힘써 『좌전』의 위작을 방증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상권을 가장 부지런히 읽었는데, 권점 흔적으로 보면 선공 이전 몇 조는 기본적으로 축자 독서했고, 선공 이후는 선택하여 약간 조를 읽었다. 하권에 대해서도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독서가 상당히 공력이 있었는데, 특히 『후한서』 제조는 축구 권점했을 뿐만 아니라 자적이 만학(漫漶)한 것을 보충하고 단찰을 전사하는 행위도 있었다. 예를 들어 류봉록이 유흠(劉歆)이 "삼통술(三統術)"을 교정했다고 한 곳에 간단 찰기에 "술, 본전작력. 주: 삼통력, 유흠찬위하은주력야(術, 本傳作歷。註: 三統歷, 劉歆撰謂夏、殷、周歷也)"라 했다. 『잠고황평』에도 비슷한 독서 흔적이 보존되어 있지만 체량상으로는 『좌씨춘추고증』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대개 『좌씨춘추고증』이 『좌전』을 제목으로 하여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좌전』 연구 선제에 더 부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별도로 지적해야 할 것은, 필자가 릉수의 『공양예설(公羊禮說)』 한 부도 발견했는데, 역시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두 매인이 찍혀 있고, 앞과 목색, 구름 방식이 일치하는 독서 권점 흔적이 있다. 이로써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한동안 집중적으로 청대 공양학 저작 일군을 열독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대 공양학 성과가 그의 『좌전』 연구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춘추 공양학이 말하는 대의에 대해 일본 경사학계의 이해는 중국과 다소 다르다. 청대 중기 이래 공양학이 부흥하여 역사 연화 발전의 이론 일체를 구축했는데, 후대 학술 사상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예를 들어 탕무혁명의 합리성 논술은 실제로 한대 금문경학 "천자일작(天子一爵)"의 인식을 병승했다. 반대로 일본 천보 9년(1838) 미나모토노 아손 마쓰나에(源朝臣松苗)가 『십팔사략』에 쓴 서언에서 언급하기를: "학자는 먼저 춘추대의를 변별하여 탕무가 역적임을 밝힌 후 제사를 섭렵해야 그 폐단이 없을 것이다." "탕벌하"에 대한 평론에서 마쓰나에는 말했다: "한어로 일컫는 역적은 국어로 조적(朝敵)이라 한다. 이것은 군자국의 구기로서 강신을 두려워하여 감히 적이라 칭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탕벌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적이니, 사관은 마땅히 '자리시기군걸(子履弑其君桀)'이라 써야 한다." 무왕벌주에 대해 마쓰나에는 평가하기를:

"주발시기군주야(周發弑其君紂也). 소동파가 '무왕비성인'의 론이 있는데, 공자처럼 '기국신자어예부득'이면 그 죄를 말할 뿐이다. 맹가가 '주일부주'라 한 것처럼 적당한 사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천황의 선악을 논하지 않는 법이다. 고로 지금까지 학문이 정직한 선비가 없어 외국의 이런 대변을 보면 경괴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학자는 도리어 이를 상사로 본다. 독서자는 마땅히 청국 충혼을 주로 하되 외국 사학에 오염될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에서 에도 시대 말기 학자들은 천황 만세일계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역사의 경질과 진보를 부정했다. 그러나 "화이진출(華夷進黜)" 등 다른 공양학 의리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극강한 흥미를 보였다.

반관하여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일본 변혁기에 처해 있어 사상이 자연히 에도 시대 구학자와 차이가 있었다. 『좌씨회전』에서 그가 역사 진화 연변의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류봉록 저작을 독서한 상황을 보면, "삼세설" 등 방면에 농후한 흥미를 표현했다. 혹시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공양학 "삼세설" 등 역사철학을 흡수한 것이 "화이" 시각에 대한 반성을 함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그의 외교관 신분과 메이지 시기 일본의 세계관 전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점은 현재 학력이 아직 미치지 못하여 잠시 전개성 논술을 하지 않겠다. 우리가 더 해명해야 할 문제는, 기왕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청대 중기 공양학 성과를 집중 독서했다면, 이러한 성과 중의 관점이 『좌씨회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2. 『좌씨회전』의 류봉록 관점에 대한 변정과 접수

전가 후기 이래 청대 경학에서 가법을 지키는 것이 학술계의 보편적 자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공광삼은 『경학지언(經學卮言)』 권6에서 말하기를: "경을 치하는 데 가법이 있음을 귀하게 여긴다." 릉수는 『공양문답(公羊問答)』에서 강조하기를: "주서자는 경사가법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학풍은 성실히 고거학 심도 추진의 결과이지만, 또한 모종 문제에서 문호의 국한을 형성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공양학을 치한 릉수는 조년에 좌씨학 전가 심흠한(沈欽韓)과 교호했으나 후에 학술 주장이 달라 격막이 생겼고, 릉수 사후 그의 생질 유문기(劉文淇)가 유저를 위해 서문을 구하려 심흠한을 찾았는데, 심씨는 고교를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직언하기를 "존구위유봉록소오, 익우공양(尊舅為劉逢祿所誤, 溺于公羊)"이라 하며 작서 요청을 거절

했다.

그러나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일본 학자로서 가법, 문호 등 개념의 속박이 분명 청유보다 훨씬 적었다. 그의 『좌씨회전』 중에서 제가 관점을 광채했는데, 단지 그가 서언에서 나열한 청유만 해도: "청에는 고씨염무, 위씨희, 만씨사동, 만씨사대, 왕씨부지, 모씨기령, 혜씨동, 마씨종련, 조씨우, 초씨순, 강씨영, 고씨동고, 뇌씨학기, 방씨포, 홍씨량길, 양씨리승, 최씨술, 주씨원영, 단씨옥재, 왕씨념손급인지, 강씨병장, 요씨원, 심씨흠한, 전씨기, 요씨내, 장씨자초, 고씨주연, 유씨월이 있어, 각각 창획이 있으니, 그 기벽을 버리고 그 정확을 취했다. 기타 고금 제가 논설이 좌씨에 관련된 것은 보수박채하여 융회관통하고 기의로 냈다." 이 청유 명단에서 볼 수 있듯이 학자의 관점에 대해 시비만 논하고 학파와 문호를 나누지 않아, 한학이든 송학이든 『좌전』 연구 관련 성과만 있으면 모두 채납될 가능성이 있었다.

임경창(林慶彰)은 문본 중 소, 주 관계 시각에서 밝히기를: "비록 다케조에씨가 두씨주를 의거로 삼아 『회전』을 지었지만, 전인의 '소불파주' 불성문 규정을 묵수하지 않고, 두예 주의 결실과 종종 부족에 대해 모두 하나하나 지적하고 변증하여, 일가를 묵수하지 않고 실사구시하는 정신을 충분히 표현했다." 주의할 것은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언급한 제인이 모두 좌씨학 명가인데, 류봉록 등 공양학 명가인 춘추학자는 특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공양학 저작을 독서하여 공양학 관점을 흡수하고 각가 관점에 대한 판단과 취사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1.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류봉록 관점 접수

아래 먼저 한 예를 들어 다케조에 미쓰히로와 류봉록 관점의 유사한 점을 논증하겠다. 노은공 원년 춘왕정월, 『춘추』 경에 "즉위"를 쓰지 않았고, 『좌전』은 "불서즉위, 섭야(不書即位, 攝也)"라 했다. 류봉록 『잠고황평』에서 하(何), 정(鄭) 두 가의 설을 평석하여 운:

何休膏肓曰: “古制諸侯幼弱, 天子命賢大夫輔相為政, 無攝代之意。昔周公居攝,

死不記崩，今隱生稱侯、死稱薨，何因得為攝者。”鄭君箴之曰：“周公歸政就臣位乃死，何得記崩？隱公見死於君位，不稱薨云何？且《公羊傳》宋穆公曰：‘吾立乎此，攝也’以此言之，何得非左氏？”（春秋隱元年疏、禮記明堂位疏）

評曰：周公誕保文武受命，非居攝也。何、鄭俱生漢季，沿劉歆、王莽之邪說耳。隱公之讓，春秋探其意而成之，著立子法，名之曰攝，而不行即位之禮，非典要也。宋穆公之事，春秋大居正，已歸禍於宋宣，亦未以穆公之攝為典要也。

이 단락 논술은 하, 정 두 가가 은공의 "섭"에 대한 인식을 전현한다: 하휴는 소위 "섭"이란 응당 주공처럼 거섭하여 군위를 점거하지 않아야 하는데, 은공은 실제로 군위를 점거했으므로 "섭"이라 칭할 수 없다고 여겼다. 정현은 주공이 거섭하여 대개 군위를 점거했지만 성왕에게 다시 양보했으므로 예법상 여전히 신자로 행했다고 여겼다. 하, 정 두 가가 모두 주공거섭을 은공의 참조로 삼은 이런 사고 모식은 필연 신망 시기 정치가 산생한 영향과 관련이 있다. 류봉록은 『춘추』가 은공을 기록한 것은 그 "위환립(為桓立)"의 초충을 광대하기 위함이라 여겼는데, 즉 『공양전』이 운한 "하이불언즉위, 성공의야(何以不言即位, 成公意也)"이며, 이 초충은 "이귀불이장(以貴不以長)"의 입자지법에 절합한다. 그래서 류봉록은 은공의 립이 주공거섭과 호무연계라고 여겼다. 이 단락 문자에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상세한 독서 권점 흔적이 남아있어, 그가 류봉록 관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두예가 『좌전』을 주해할 때 제출하기를 "가섭군정, 불수즉위지례, 고사불서어책, 전소이견이어상야(假攝君政, 不修即位之禮, 故史不書於策, 傳所以見異於常也)"라 했다. 두예는 은공이 섭정하여 의식상 군위를 확립하지 않았으므로 즉위를 쓰지 않았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은 실제로 여전히 주공거섭과 연계시킨 것으로, 하휴의 주공거섭 이해에 더 가깝고 정현과는 다르지만, 하휴가 관찰한 은공 "생칭후, 사칭홍"의 예제 문제를 해답하지 못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전문에서 두예를 명확히 반박했다:

攝者，攝位也，非攝政也。下文曰“公攝位而欲求好於邾”，即受此文也。增島固曰：“《公羊傳》曰‘隱為桓立’，《史記》魯世家曰‘魯人共立息姑’，其立而即位也，何容疑？”

분명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은공이 "군위"가 있지만 이런 군위가 진위가 아니라 "가섭"의 위라고 여겼다:

然則宜書即位而不書，故曰“不書即位，攝也”。攝者，假也，非真之謂也。隱公雖立，有終讓國授桓之志，故其心猶為假攝也。考攝政之典，攝者有三等：一則先君無子，大臣假聽政也，若《曾子問》“君薨而世子生，卿大夫從攝主，北面于西階南”是也；一則亮陰三年，冢卿代次君聽政也，若《論語》“君薨，百官總己以聽于冢宰”是也；一則親臣代幼主聽政，若周公以叔父之親，代成王攝治天下之政是也。隱之攝也，異于此三典，天子命之，國人君之，儼然在位之正君也。特其心自以為攝耳。今觀傳所記，其自稱寡人者三、稱寡君者一，寡人、寡君諸侯之稱，攝主而如是乎？及羽父請殺桓，曰“為其少故也，吾將授之”，授者果何？非授位耶？況《春秋》首隱，稱公而起年，其死也曰“公薨”，其立而即位，亦何疑？在《春秋》時，不惟隱爾，宋穆公亦然，《公羊》記穆公言，曰：“吾立乎此，攝也。”終致國于與夷。隱之於桓，猶穆之於與夷耳。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좌전』을 전석할 때, 『좌전』이 그를 "섭"이라 칭했으므로 "섭"의 경로를 따라 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전석은 두에와 다르고, 그 관점이 류봉록과 매우 접근한다. 첫째, 그는 은공이 의심할 여지 없이 군위에 올랐음을 논증했는데, 은공이 즉위한 것이 최종적으로 나라를 환공에게 양보하기 위함이므로 "섭"자를 써서 그 본래 심적을 창현했다고 했는데, 이는 마침 류봉록 "탐기의이성지(探其意而成之)"의 주각이다. 둘째,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섭"에 관한 전요를 고찰하여 삼등으로 구분하고, 은공의 섭이 이 셋과 모두 다르다는 결론을 얻어, 류봉록 "비전요야"의 좌증 재료가 되었다. 셋째, 류봉록과 같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은공과 주공이 완전히 다르므로 함께 비교 토론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송목공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 세 점으로 볼 수 있듯이,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비록 『좌씨회전』에서 류봉록의 관점을 명인하지 않았지만, 류봉록 저작을 심각히 독서한 후 그 관점을 흡수 채납하고 발휘 이용했다.

2.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류봉록 관점에 대한 변정

류봉록 『좌씨춘추고증』에서 은원년 전문 "원년춘왕주정월, 불서즉위, 섭야"라, 증왈: "차류개습공양이매기의례, 증'주'자역부사(此類皆襲公羊而昧其義例, 增'周'字亦不辭)." 류봉록은 일항 『좌전』이 위작이라 주장했으므로 그 의례가 불창하고 용자가 부사한 곳을 지적했다. 두예가 "주"자를 해석할 때 칭하기를 "언주, 이별하은야(言周, 以別夏殷也)"라 했는데, 그러나 경문은 직서 "왕정월"이고, 명백히 "주정"을 쓰므로 다시 "주"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전석하기를: "왕구절, 유왈왕정월자, 주정월야, 별하은지정야. 고기관식역다칭왕정월, 가지비부자신의(王句絕, 猶曰王正月者, 周正月也, 別夏殷之正也. 古器款識亦多稱王正月, 可知非夫子新義)." 여기서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구독과 어법 분석 방식을 통해 류봉록이 말한 "부사" 문제를 해결했다. 류봉록은 구자가 불통하다고 여겼는데,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이를 생문이라 칭하며, 실제로는 전문이 "주정월"로 "왕정월"을 천석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서 야스이 코(安井衡)의 설을 인용하여 운:

王, 即周王。經云“王正月”, 則周正月可知矣。而傳必言周者, 蓋周室並用周正、夏正。周正用之發號正名之事, 諸春秋所載是也。其施於時令者, 皆用夏時。夏時得天, 所以使民不迷也。《周禮·冢宰職》“正月之吉始和”, 注: “正月, 周之正月。吉謂朔日。”《小宰職》“正歲帥治官之屬, 而觀治象之法”, 注: “正歲謂夏之正月, 得四時之正, 以出教令者審也。”是也。大司馬因四時田獵以教戰法, 而仲冬最備, 亦以其農隙耳。若以為周仲冬, 則今之九月, 收穫正殷。聖人必不以此時妨農事也。故一部《周禮》凡言正歲、歲終、春夏秋冬而不月者皆夏時, 其言月者乃周正, 書法井然不紊。乃至左氏所載春蒐、夏苗、秋獮、冬狩, 亦皆於農隙, 則亦夏時也。《逸周書》云: “我周作正, 以乘三統, 至於敬授民時, 巡狩烝享, 猶自夏焉。”是言信信有徵焉, 周既並用夏時, 而丘明所載又有夏時, 恐後人疑王正月, 故加一周字釋之, 以示發號正名之法也。

이 단락 문자는 상실한 재료로 전문 중 "주"자를 쓸 필요성을 논증했다: 즉 주정과

하정 병용의 가능성, 특히 『좌전』 서사 중에서 이런 상황이 더 상견하므로, 전문이 "왕정월"에 "주"자를 첨가하면 의의가 더 완정할 수 있다. 가견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먼저 류봉록 "첨주부사"의 관점을 해결하고, 다음으로 반드시 "주"를 첨가해야 하는 원인을 천명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중요한 문제를 흘시켰는데, 즉 『좌전』은 응당 경을 해석하는 것이지 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에서 천명한 "주"자를 증첨한 원인은 많이 『좌전』 서사 중 주정과 하정 병용 때문인데, 이는 분명 전문을 해명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혹시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이런 천석이 논리상의 결함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더 나아가 최술(崔述)의 말을 인용하여 신명했다:

古之時，三正並行於侯國。故春秋屬正月於王，以別嫌而傳信。王也者，周也。王正月也者，周正月也。以別於夏、商之丑正、寅正，則曰周正月；以別於諸侯之丑正、寅正，則曰王正月也。後儒不知三代正朔之制，因而不知《春秋》書王之意，但見《詔誥》之“二月”、《多士》之三月皆不書王，遂疑聖人別有深意，而以欲行王道之義訓之，誤矣。夫《詔誥》《多士》皆《周書》也，《周書》則周正矣，故不必自冠以王。《春秋》諸侯之史也，諸侯固有用二代之正者，不冠以王則不可必其為子正，故書曰“王正月”。由是言之，王正即周正也。

최술의 이 단락 논술을 인용한 그 작용은 왜 『좌전』이 "왕주정월"을 써야 하는지 천석하는 것이다.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단구로 이해하면, 주정월은 왕정월을 해석하는 것이다. 『춘추』가 주대 문헌으로서 경문이 "왕정월"을 쓴 것은 주정을 쓰지 않은 제후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왕은 주왕을 지시하고, 정은 주정을 지시한다. 이는 경문에 대한 전석인 동시에 공양학 등이 "왕정월"에서 발굴한 미언대의를 와해시켰다. 해경문이 마치 사료를 해독하듯 평실한 것은 도리어 좌씨학의 특징에 부합한다.

이칙 전문의 논리에서 다케조에 미쓰히로 입론의 대상을 명현히 체미할 수 있다. 류봉록의 이조 고증 하에 독서 흔적이 남아있어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류봉록의 관점을 접촉했음을 표명한다. 비록 『좌전』을 천석하기 위함이라 전문에서 류봉록의 관점을 명확히 지적할 방법이 없지만, 전문의 구조 논리상 여전히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해결하려는 것이 바로 류봉록이 말한 "첨주부사"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먼저 구법상 이순하여 형식상 "부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해전, 해경의 각도에서 『좌전』이 "왕주정월"을 쓴 합리성을 토론했다.

두 칙 예증을 빌어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류봉록의 저작을 독서한 후 청대 공양학 성과를 흡수했을 뿐 아니라 이성적 반사도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학술사를 고찰하면 공양과 좌씨 문호의 쟁이 역사 발전에 따라 점차 심구로 구건되어, 청대 후기 류봉록이 반대 좌씨의 대기를 고양하여 후래 학술 발전에 영향이 극대했다. 그러나 초기 『춘추』학 천석에서 공, 좌가 호위 좌증하는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 정현은 공양학과 좌씨학 양가에 모두 사승과 심입한 학습이 있어, 그 경해에서 양가 관점을 수의 넘래 사용했다. 두예가 『좌전』을 집해할 때도 공양학 학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경문 "원년춘왕정월"을 해석하면서 말하기를: "범인군즉위, 욕기 체원거정, 고불언일년일월야(凡人君即位, 欲其體元居正, 故不言一年一月也)."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두예의 "체원거정"설이 동증서의 관점에 본했다고 지적했다:

《春秋》謂一元之意：一者，萬物之所從始也；元者，辭之所謂大也。謂一為元者，視大始而正本也。《春秋》深探其本，而反自貴者始，故為人君者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正百官以正萬民，正萬民以正四方。四方正，遠近莫不敢壹於正。

그래서 공양학과 좌씨학이 보기에 문호가 삼엄하지만, 실제로 이미 상호 삼투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문호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채택하여 선자종지, 불선자변지하는 이런 치학 태도가 분명 고의에 심계하며, 좌씨학을 치하는 응유의 태도다.

3.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기타 청대 공양학 저작에 대한 접수

앞서 언급했듯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류봉록의 저작에만 독서 흔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릉수 등 학자의 저작에도 독서 흔적을 남겼다. 이는 그가 한동안 청대 공양학 저작 일군을 번열했음을 표명한다. 류봉록의 저작을 핵심으로 이미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청대 공양학 성과에 대한 흡수와 반사를 토론했다. 여기서 다시 다케조에 미쓰

히로가 릉수 『공양예설』 관점을 변정한 예를 들어, 그가 청대 공양학을 충분히 이해했음을 더 설명하겠다.

『춘추』 경 은공 2년 9월 "기리선래역녀(紀履綸來逆女)", 『공양전』 운 "기시불친영(譏始不親迎)". 릉수 『공양예설』 개편 즉은: "불통춘추지례자, 부족여언춘추지례. 춘추지례, 외역녀불서, 실례서, 고전이위 '기불친영야'." 고로 이 례로 보면 장공 24년 경서 "공여제역녀", 전 "하이서? 친영, 례야"에 그중 필유 은의가 있으니, 고로 집차이인위 제후가이월경친영할 수 없다. 릉수는 하휴가 주한 "휘음"에 빙자하여 지적했다:

此變例也，非此之謂也。公淫於齊女，內大惡不可言。然諸侯之禮，非朝時不逾竟，然則公何為至齊乎？故變例書如齊者，逆女故耳。傳從經為諱辭，故曰禮也。

부이 장공 27년 전에서 거경역숙희사를 기롱하여 논했다:

莒慶來逆叔姬，傳“何譏爾？大夫越境逆女，非禮也”。言大夫越竟逆女為非禮，則公之如齊為非禮灼然可知。何注“大夫任重，為越竟逆女，於政事有所損曠，故竟內乃得親迎，所以屈私赴公也”。據此則諸侯重於大夫，亦更無有越竟之事矣。

릉수는 하휴의 의에 따르면 대부가 월경친영할 수 없는 것은 그 직책이 중요하여 사로 인해 공을 폐할 수 없기 때문이고, 제후는 직책이 대부보다 더 중하므로 역시 월경친영할 수 없다고 여겼다. 릉수의 관점은 부분 공양학 연구자의 인동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 하약요(何若璠)는 그의 『춘추공양주소질의(春秋公羊注疏質疑)』에서 릉수의 관점을 승습했다:

莊二十四年傳“親迎，禮也”，似以親迎為諸侯所當行，但莊二十七年傳“大夫越竟逆女，非禮也”，注“禮：大夫任重，為越竟逆女，於政事有所損曠”，據此諸侯任更重豈轉可越竟乎？

그러나 많은 학자가 릉수의 관점에 인동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그의 호우 포신언

(包慎言)은 친영지례가 응당 제후에 달해야 한다고 여겼다. 포씨는 류봉록 "대부불외취, 제후불내취"의 이론을 계승하고, 릉수가 이런 실오를 한 것은 대개 정자의 설로 인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程子謂“親迎者，迎于其館，豈有委宗廟社稷遠適他國以逆婦者”，此迂疏之見，豈閣下亦為所誤乎？審如其說，則何注引書傳云“夏后逆於庭、殷人迎於堂，周人逆於戶”者，其館乎？非館乎？慎言則謂《詩·韓奕》云“韓侯迎止，于蹶之里”，此諸侯越竟親迎之明證。且諸侯如果不越竟，則經但書“紀履緌來逆女”，傳又何從知紀侯之必不親迎于館而譏之也？

『좌전』 은공 2년 "구월기렬선래역녀, 경위군역야." 다케조에 미쓰히로 전운:

公、穀、史遷皆以為諸侯當親迎，程子辨之曰：“親迎者於其所館，豈有遠宗廟社稷而遠適他國以逆婦者。”程說是也。國君迎夫人於其所館，有親御受綏之禮。《哀公問》言“晁而親迎”，亦迎於所館耳。若文王之親迎，為世子時也；韓侯之親迎，入覲而致蹶里也。皆不得為比。此亦卿為君逆，得其常禮。

좌씨는 공양처럼 "기불친영"의 의가 없다. 따라서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천석 임무는 어떻게 "친영"과 "경위군역"의 모순을 조화시키느냐가 되었다. 이때 릉수 입론 내원 중 하나인 정자의 설이 유력한 재료가 되었다. 경학가가 상인한 문왕친영, 한후친영의 안례에 대해 다케조에 미쓰히로도 양척이 모두 제후월경친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양학 "기시불친영"의 국한에서 도탈하려면 릉수가 언급한 제후부득월경친영이 다케조에 미쓰히로에게 큰 계발이 있었다. 그 운:

《春秋》果譏不親迎，假令昏於秦楚，而為國君者將舍國事之重，越千里，踰十月以求婦乎？魯十二公之夫人，若子氏、若姒氏均非齊魯之近也，當日必以大夫迎之，而《春秋》不悉書者，此正所謂“常事不書”也。

이 단락 전석 문자는 명현히 릉수가 말한 대부임중부득월경친영, 제후임중어대부경 불응해광일부재이월경친영의 관점과 일치한다. 비록 릉수가 『춘추공양전』 친영례 연구로 조론했지만, 도리어 『좌전』학자가 "기불친영"을 인가하지 않는 관점에 영합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릉수 『공양예설』 독서 기초상에서 릉수의 관점을 채신하고 자신의 전석 공작에 인증했다. 류봉록과 같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인용 중에서 릉수의 관점을 명언할 수 없었지만, 재료의 선취, 관점의 천술 중에서 그가 릉수 『공양예설』을 독서 완료한 후 산생한 견해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보면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청대 공양학 성과에 대한 흡수는 전면적이다.

결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풍부한 중국 유력이 있었고, 학자형 외교관으로서 중국에서 필시 대량의 전업 문헌을 수집 열독했을 것이다. 『좌씨회전』 문본에서 보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대량 중국 학자의 『좌전』 연구 성과를 독서, 인용했다. 문헌 실물상으로 보면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좌전』 연구 성과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청대 공양학 저작도 광범위하게 섭렵했다. 『청경해』는 대규모 청대 경학 저작 집성으로서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독서와 연구에 문헌 자료상의 편리를 제공했고, 그의 구서 여정을 용이하게 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권점 독서 흔적이 있는 청대 공양학 저작을 통해, 우리는 고대 제국의 등불 아래서 면면히 독서하는 일본 학자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 같다. 바로 이런 독서하는 모습이 층층이 쌓여서 『좌씨회전』이라는 황황한 거작을 만들어냈다. 총결하면, "서적사"와 "사상사" 쌍선 병중의 취경을 통해, 일본 메이지 시기 학자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청대 공양학, 특히 류봉록 저작에 대한 독서와 수용을 고찰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물질 층면에서 보면, 새로 발견된 『청경해』 경신보간본에 날인된 "다케조에 미쓰히로" "정정거사진장" 인감 및 그의 친필 권점, 찰기는 다케조에 미쓰히로가 일찍이 류봉록의 『공양하씨석례』 『좌씨춘추고증』 『잠고황평』 나아가 릉수의 『공양예설』을 체계적으로 연독했다는 견실한 증거를 구성한다. 이는 그가 청대 경학 총서를 구장, 독서한 구체적 실천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학술 사상 형성 맥락을 가전의

문헌 기초 위에 정박시켰다.

둘째, 내용 측면에서 보면, 『좌씨회전』의 문본과 류, 릉 등 사람의 공양학 논저가 심층적 대화를 형성했다. 다케조에 미쓰히로는 결코 피동적으로 초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보수박채, 융회관통, 출지이기의"의 저술 원칙을 병지하여 주동적인 변별과 취사를 진행했다. 그는 류봉록의 은공 "섭정"이 "거섭"이 아니라는 논점을 흡수 전화했지만, 그가 『전』문 "왕주정월"을 "부사"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유리유거한 변정을 했다. 이런 흡수하면서도 비판하는 태도는 한 탁월한 학자가 문호의 견을 초월하여 학술 진지를 추구하는 탁식을 청석히 전현했다.

종합하면,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좌전』 연구는 청대 중기 이강 금문경학 부성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청대 공양학이 제공한 "삼세설" 역사철학, 예제 문제에 대한 심각한 부석, 나아가 격렬한 금고문 논쟁은 모두 그가 『좌씨회전』 학술 체계를 구축할 때 불가결한 사상 자원과 대화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좌씨회전』의 성서는 단지 중일 양국 『좌전』학 전통의 집대성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청대 공양학 부흥의 자극과 자양 하에서 『춘추』학 발전의 한 차례 초국계, 초학파의 교용과 승화로 보아야 한다.

또한 파촉서사(巴蜀書社) 편집부는 『좌씨회전』 출판 설명에서 지적했다: "『회전』도 그 부족한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용한 전인 성과는 두주를 제외하고는 변별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출처를 주명하지 않아 더 깊이 추구하기 어렵다....." 만약 다케조에 미쓰히로의 전적에 대한 독서 상황을 충분히 발굴하고, 더 나아가 관점을 비감할 수 있다면, 혹시 이 문제가 초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